

네덜란드 하원 '위안부결의안'(2007.11.8, 한역)

의회는 이 논쟁을 들으며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네덜란드가 400년 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2008년에 이르러 외교적 관계로는 150년을 지속해왔으며 공동의 미래를 공유하고자 함을 고려한다.

일본은 어떠한 유보도 없이 2차 대전 중 시행한 강제매춘 제도와 이른바 위안부에게 일어난 고통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바라보며.

일본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라는 방식으로 위안부라는 비극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책임을 받아들인 것을 주시하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사퇴한 아베 신조 수상이 지난 3월 했던 발언과 올해 초 워싱턴 포스트에 일본의원들이 낸 광고에서 나타나듯 일본정부와 의원들이 이 담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주시하며..

지난 6월 26일 미국하원의장의 워싱턴 포스트 광고에 대한 서한의 답신에서 11월 7일 일본 의회 의장이 자신은 그 광고에 대해 거리를 둔다고 했던 것을 보며

일본 학교에서 가르치는 특정 자료에는 위안부에 대한 표현을 포함해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고려하며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매개로 위안부들에게 보상에 준하는 조치를 제공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 공적기금으로 출연되었더라도 민간조직에 의해 지급된 것임을 고려하며

일본정부는 1993년의 유감표명을 격하시키는 어떠한 언급도 중단하고 강제매춘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위안부들에게 가해졌던 고통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배상을 개별적으로 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일본정부는 일본 학교의 모든 교육 자료가 2차 대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사실적인 사진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